01□□□(□□)_□□□□□□17□ 14. 8. 12. □□ 5:14 Page 7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7호 2014.6. pp.7~37.

억압의 현실을 전복시킨 희망의 언어

—이시영의 『만월(滿月)』과 김명인의 『동두천(東豆川)』을 중심으로

Subversive Words of Hope in the midst of Oppression

구혜숙(단국대 박사과정)

차 례

1. 서론
2. 이시영의 『만월(滿月)』과 김명인의 『동두천(東豆川)』에 드러난 1970년대의 고통
3. '흉년의 세월'을 이기는 시인, 이시영
4. 어둠의 끝으로 가서 희망을 발견하는 시인, 김명인
5. 결론

1. 서론

이시영과 김명인[1]을 비교해서 읽는다는 것은 1970년대의 시대적 자화상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의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시정신의 대표적인 유형과 흐름을 발견하게 된다. 두 시인의 활동 시기는 서로 겹치며, 그 시기의 역사적 특징은 이들의 시에 그대로 투영된다. 기본적으로 이시영과 김명인 두 시인은 민중의 현실적 참담함과 역사의 고난을 시적 주제로 삼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다.

1 이시영은 1949년생, 김명인은 1946년생으로 연배는 김명인이 조금 위이나 시인으로서의 등장은 이시영이 1969년 중앙일보의 신춘문예 당선으로 1973년 같은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등단한 김명인보다 4년이 앞섰다. 그래서 이시영의 첫 시집 『만월』은 1976년에, 김명인의 첫 시집 『동두천』은 1979년에 나온다.

01□□□(□□)_□□□□□□17□ 14. 8. 12. □□ 5:14 Page 8

1970년대는 정치적 억압과 역사적 각성이 서로 충돌하면서 긴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일종의 기본적 조형이 이루어진 시기다. 고통이 깊어지면 좌절도 심화되지만, 그에 대한 주체적 대응 또는 응전의 의식도 성장하는 법이다. 한 시대의 자화상은 이러한 현실과 의식의 공시적(共時的) 변화의 산물이다. 시는 이러한 시대적 고뇌의 현실과 극복의 의식세계에 대해 압축적으로 발언하는 문학적 현장이라는 점에서 시인의 작품과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관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은 시의 내면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다. 그런 점에서 1970년대라는 정치사회적 억압의 강도가 고조된 시기에 등장한 이시영과 김명인은 당대의 아픔과 역사적 각성을 시의 미학으로 확보한 시인이다.

두 시인은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그들이 주목한 현실의 구체적인 면모는 좀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다른 현실이 아니라 1970년대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이다. 이시영과 김명인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역사를 각도가 다른 시선으로 해부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꿈꾼 '혁명적'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혁명적'이라고 한 까닭은 두 시인이 모두 기존의 억압적인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를 전복(顚覆)시키려는 의지를 시에서 구체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각기 어떤 시적 구성과 표현, 그리고 발상으로 이와 같은 전복을 수행하려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논문의 중요한 작업이 된다. 물론 이러한 자세와 인식을 가진 당대의 시인이 이 두 시인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시영과 김명인은 세대가 거의 일치하고 동일한 의식에서 출발해서 다른 방식으로 현실에 시적 접근을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것은 1970년대 시정신의 흐름을 구성하는 대조적이면서도 통합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시영이 근대의 삽으로 해체되어간 촌락을 그의 원형적 경험으로 삼고 있다면, 김명인은 바로 그 근대의 현장이 가진 비극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절망이 지배하는 시대에 희망의 언어를 그 사회 구성원에게 돌려

01□□□(□□)_□□□□□□17□ 14. 8. 12. □□ 5:14 Page 9

줘야 한다는 것은 시의 본질적 사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는 기성의 현실에 가담하여 고통의 원인을 은폐하거나 억압의 질서를 외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억압적 권력의 요구에 응하면서 시의 자유를 포기하는 과정이 된다. 시인과 시 그리고 그 시대의 현실이 어떤 관계에 놓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따라서 시의 현재적 기능과 미래적 비전을 동시에 고뇌하는 노력과 이어질 것이다.

이를 전제로 이시영과 김명인이 서로 어떤 점에서 같았고,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를 살펴보면서 고난의 시대에 시가 무엇을 발언하고 수행해야 하는지 성찰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여전히 정치사회적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70년대의 억압적인 구조가 현실에서 새로운 방식을 통해 관철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이러한 고통의 사회적 심화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며, 그 아픔과 치유, 희망을 한 시대의 육성으로 만들어나갈 책임이 있다. 이시영과 김명인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 논문은 그러한 시적 발언의 골격을 재조명하는 시도를 할 것이며 그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의 시가 어떤 문학적 각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를 능욕당한 시대로 규정한다. 여기서 "능욕"이란 단어를 사용한 까닭은 이 시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고강도로 짓밟히고 희생되는 역사적 전개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규정은 매우 논쟁적인 규정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이 시대를 우리 사회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퇴행하는 시발점으로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발전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삶의 터를 말살한 결과로 그 시대의 발전이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문학은 이에 대해 입을 열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학은 강자 또는 승자의 영광에 바치는 헌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바로 그러한 각도에서 시가 한 시대의 비극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기록하고 그것을 문학의 목소리로 구체화

01□□□(□□)_□□□□□□17□ 14. 8. 12. □□ 5:14 Page 10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 시대가 능욕의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글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두 시인이 바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경험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적 좌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시적 표상을 획득해나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시인의 작품과 그 시 정신에 대한 분석은 이들이 자신의 실존적 뿌리를 내린 1970년대와 이를 반영한 이들의 시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2. 이시영의 『만월(滿月)』과 김명인의 『동두천(東豆川)』에 드러난 1970년대의 고통

이시영과 김명인이 시적 고투의 대상으로 삼았던 1970년대가 그들의 시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선 이 시대의 성격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이 시기는 근대의 문제가 함께 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논의과정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실질적 근대가 시작되는 기점을 확정하는 문제는 단지 역사의 시기구분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다른 시대로 넘어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를 무엇으로 짚느냐는 우선 가치문제와 직결된다. 그런데 이 논의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다. 그것은 가치의 문제를 포함하여, 현실의 권력질서와 사회경제적 특권구조의 기원과 관련한 논의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근대화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2], 1970년대의 "발전"에 대한 뿌리와 기원, 그 본질

2 안병직, 이영훈 등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이에 대한 전상인의 사회학적 지원 등은 그 대립축으로 신용하, 이만열, 한홍구 등의 역사학자를 비롯하여 진보적 사회과학자들로 나뉘어 1980년대 이후 논쟁이 격발되었다. 일제 식민지 정책의 "개발"을 근대적 발전의 경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착취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비롯해서 이후 1960년대의 근대화정책의 기원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었다.

01□□□(□□)_□□□□□□17□ 14. 8. 12. □□ 5:14 Page 11

에 대한 평가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1970년대를 국가주도형 압축 성장을 통해 한국사회의 근대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견해와, 바로 그 과정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대한 희생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입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압축성장의 과정을 통해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인간의 희생이 정당화되는 것은 당연히 거부해야 할 일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 짓밟혀도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회적 논리가 힘을 쓰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말기 때문이다. 문학은 언제나 이런 시대윤리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과 성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학은 기존 권력의 홍보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 있다.

식민지와 전쟁의 시기를 거쳐 빈곤과 독재의 상황에 처했던 한국은 1960년대 군사쿠데타를 기점으로 근대적 산업사회에 진입하는 경로를 둘러싸고 깊은 갈등을 겪게 된다. 이것은 국가체제의 강화와 사회적 약자들의 주변부화라는 상황을 만들어냈고,[3] 이에 대한 저항은 민주화 운동의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에 대한 문학적 저항과 도전은 1970년대 리얼리즘과 민족문학, 민중문학이라는 양상으로 구체화되어간다. 문학이 하나의 전선(戰線)을 형성해나간 것이다. 신경림은 이러한 현실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 근대화, 공업화는 저(低) 농산물 가격으로 상징되는 농촌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농촌을 떠나 도시 변두리로 모여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나아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

3 한홍구는 2장 "우리는 무덤 위에 서 있다"에서 만주국가 건설의 전략이 박정희 체제 안에 담겨 있다면서 국가권력의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본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홍구, 『대한민국 史』 1권, 한겨레 출판사, 2006.

01□□□(□□)_□□□□□□17□ 14. 8. 12. □□ 5:14 Page 12

층을 문학이 외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70년대 리얼리즘의 골간을 이룬다.[4]

이것은 우리의 근대적 변화의 중심에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질서가 견고하게 굳어져갔고, 사회적 약자들이 대량으로 생겨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확산되어갔음을 깊이 인식한 결과이다. 70년대 문학이 이러한 인식을 자기화하면서 60년대 문학의 순수-참여 논쟁은 다른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주제의식에 따라 민족의 분단, 민중적 현실의 고된 처지를 그려내는 작업으로 나뉘어갔다.

그런데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은 사실 그 경계를 뚜렷하게 긋는 작업이 쉽지 않았거니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대두되었다. 백낙청의 주장이 그런 경우다.

민중이 생활상 대외 종속적이고 불균형한 분단의 사회구조와 외세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그에 대해 가장 대립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가장 민족적인 존재라는 맥락에서 민중이야말로 민족해방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민족문학은 민중에 기초한 민중문학에 의해 구체화된다.[5]

이는 한국사회가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해간 1970년대의 시기가 사실 그 변화의 피해자들을 전면에 노출했고, 이들의 삶에 대한 문학의 관심은 민족과 민중의 결합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민족/민중 문학은 이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고통을 문학의 발언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압축성장의 성과를 홍보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미화하고 있는 현실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었다. 이시영과 김명인은

4 신경림, 『삶의 진실과 시적 진실』, 전예원, 1982, 17쪽.
5 백낙청,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1984. 김창수, 「민족문학, 민중시의 개념과 범주」, 김윤식 외, 『한국현대시사 연구』, 시학, 2007, 439쪽에서 재인용.

01□□□(□□)_□□□□□□17□ 14. 8. 12. □□ 5:14 Page 13

이 대립과 저항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시 작업의 현장을 설정했다. 이들 두 시인의 삶과 의식의 맥락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시인은 동일한 출발점에 서 있다. 가고자 하는 길도 다르지 않다. 고되고 힘든 시절, 침묵하지 않고 고통을 시로 길어 올려 어두운 밤의 시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70년대 고통의 기억을 망각하지 않고 그것이 도리어 희망을 내다보게 하는 문학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고통을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고통의 역사적 뿌리까지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시의 기능은 사회 전체의 망각을 일깨우고 시선을 바로잡는 일이 된다. 식민지의 역사가 지워지고, 정치가 모순을 은폐하며 교육과 언론이 주변부적 존재를 배제시키는 현실에서 이들의 시는 하나의 문학적 다큐멘터리가 된다. 물론 그것은 영상처럼 실사(實寫)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 현실에 시의 렌즈를 대고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며 그 상처가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를 해부하는 사회학적 분석이기도 하다. 문학의 책무가 이런 방식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그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경로를 모색하게 된다. 기질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출발점으로 해서 문학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자칫 기득권 질서의 억압이나 회유에 의해 가난해지기 쉬운 문학의 정신을 극복해나가는 행위가 된다.

1970년대는 정치권력의 억압과 사상적 제약 속에서 자유와 상상력의 힘이 궁핍한 시대였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시영, 김명인 두 시인은 바로 이 '궁핍한 시대의 시인'의 몫을 해내고 있다.[6] 그것은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김우창이 잘 지적한 대로 '님이 침묵하

6 김우창은 한용운을 일러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라고 부른다.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이 상징해주고 있듯이 그가 시를 썼던 시대는 "님이 침묵하는 시절"이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돌파하고자 하는 한용운은 "우리 현대사의 초반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까지를 포함한 '궁핍한 시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화꽃"으로 남아 있다고 말한다.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131쪽.

01□□□(□□)_□□□□□□17□ 14. 8. 12. □□ 5:14 Page 14

는 시절'의 시를 쓴 이들이다. 그 침묵의 바다에서 이시영과 김명인은 무엇으로도 침묵시킬 수 없는 노래를 부른다. 문학의 사회적 소명에 대해 이들은 명확한 자세를 견지했던 것이다.

이들의 시에는 '고통'의 문제가 깊숙이 성찰되고 있으며, 민중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결코 그저 지나치지 않고 우리들의 시선에 적나라하게 내놓는다. 그것은 민중의 희생을 은폐하면서 압축성장의 영광을 미화하는 권력과의 대결을 각오하는 것이자, 단지 국내의 권력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외세에 대한 문학적 고발과 질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이들에게 기존질서에 대한 문학의 전복적 힘을 발휘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러한 고통과 고발, 그리고 시대의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두 시인 모두의 시집에는 이들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겪은 일들의 기억이 중요한 시적 상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시영의 『만월』에는 시골 촌락의 정경과 그곳에서 겪은 일들이 주로 시적 화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김명인의 『동두천』의 경우에는 고아원과 동두천 교사 시절, 월남전의 이야기가 시적 서사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무대의 차이는 이시영의 경우 민중적 현실에 대한 시적 탐색이 초점이 되고 있다면, 김명인의 경우에는 전쟁과 분단이 빚어낸 현실의 고통에 그의 시를 조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만월』과 『동두천』 두 시집의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을 하나로 골라 요약하는 일은 어렵지만, 그래도 각 시인의 시 정신을 잘 드러내는 시와 발언을 비교적 관점에서 주목하면 두 시인이 무엇을 고뇌하면서 시를 썼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시영의 시 「표적」은 이 시대의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 안으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하늘의 소리가 되게 하겠다는 시적 의지를 아래와 같이 담아내고 있다.

풀잎 곁에는 늘 하나의 돌이 놓여 있다

01□□□(□□)_□□□□□□17□ 14. 8. 12. □□ 5:14 Page 15

풀잎이 울어도 누워본 적이 없고
별빛 속에서도 빛나본 적이 없는
어두운 돌이 하나 하늘을 향해 반듯이 놓여 있다

—「표적」 전문[7]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런데 그 곁에 이름 없는 '돌'은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미미하고 초라한 존재다. 그건 "별빛 속에서도 빛나본 적이 없"다. 그 '돌'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민중의 현실을 떠나지 않고 때로 암담한 현실이 닥쳐와도 "하늘을 향해 반듯이 놓"이는 모습은 고난을 이기는 문학, 또는 시인의 의지로 읽힌다.

김명인은 그의 시집 『동두천』의 머리말 자서(自序)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다.

이 황량하고 살기 힘겨운 시대에 시를 쓰면서, 삶과 사물에게 나는 얼마만큼의 절실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러움 뿐이다. (중략) 아직도 시간은 밤이고 춥고 막막한 암중모색이 의식될 때마다 나는 언제나 한밤에만 핀다는 그 무슨 풀꽃 이름을 다시 떠올려 보곤 한다.

—자서(自序) 부분

춥고 황량한 시대에 김명인은 사랑의 꽃을 피워내고 싶어 한다. 그것도 한밤에만 피는 어떤 '풀꽃'이다. 아직도 시간은 밤이고 춥고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시인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모색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무리 시절이 암담해져도 자신의 시적 육성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고난을 강요하는 현실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맹렬하다.

---

7 이시영, 『만월』, 창비, 1976, 34쪽.

01□□□(□□)_□□□□□□17□ 14. 8. 12. □□ 5:14 Page 16

결국 두 시인 모두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갈 시의 힘을 믿으려 한다. 그리고 그 시가 한 시대의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헤집지만 그와 함께 암중모색의 돌파구를 함께 찾는 작업에 우리를 초대하려는 것이다. 이시영은 "별빛 속에서도 빛나본 적이 없는 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김명인은 "한밤에만 핀다는 그 무슨 풀꽃"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는데 그 돌과 풀꽃은 시대를 밝히고 깊은 밤을 절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두 시인의 시집에서 드러난 1970년대는 어둠과 빛, 그 명암의 기록인 동시에 희망으로 가는 길에 대한 시적 의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3. '흉년의 세월'을 이기는 시인, 이시영

이시영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려했는가의 질문에 대해 그의 시적 현장의 소재를 확인시켜준다.

남쪽 끝은 서러워라
떨리는 손 밀리어 밀리어
떨리는 자유 안고 마지막 와 닿은 변방

눈뜨고 팔려가는 촌년들
치마로 낯을 가리고 돌아보는 거리
너 예까지 오고 말았구나

—「남녘」 부분[8]

여기서 '남녁'은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땅이다. 그런데 그 남쪽에서도

8 앞의 책, 58쪽.

01□□□(□□)_□□□□□□17□ 14. 8. 12. □□ 5:14 Page 17

변방의 한계, '남쪽 끝'은 지리적으로 전라도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주변으로 밀려난 존재들일 수도 있다. 그곳은 자유가 도달한 종착점이 아니라, "눈뜨고 팔려가는 촌년들"이 그곳까지 와서 "치마로 낯을 가리는" 수모와 비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고장이 된다. 시인은 이를 "서러워라"라고 토로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신경림은, 이시영의 『만월』에 실린 작품에 등장하는 시골은 "꽃피고 새우는 목가적인 곳이 아니라, 가난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역사의 현장"[9]이라고 보았다. 이시영의 시가 뿌리내리는 현장은 바로 그러한 곳이다. 그의 시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형적 경험의 토대는 "촌년"들로 압축되는 민중적 삶인 것이다.

그런데 본래 우리의 역사는 한은 있었어도 이렇게 서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떠도는 것들이 산천에 가득 차서
거적때기 같은 것으로 서로의 발을 덮어주며

—「백로(白露)」 부분[10]

그렇게 서로의 발을 덮어주면서 살았던 세월은 이제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 제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겨워도 이런 마음과 공동체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인간은 외롭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찾아보는 일은 이제 쉽지 않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에게 그리움이 된다. 그러나 그 그리움은 그저 과거에 대한 낭만적 회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애틋한 회고를 넘는 복원의 의지가 그의 시에 담긴 요체다.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

9 신경림, 『독서생활』 통권 16호, 삼성출판사, 1977, 224쪽.
10 이시영, 앞의 책, 9쪽.

01□□□(□□)_□□□□□□17□ 14. 8. 12. □□ 5:14 Page 18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그리움」 부분[11]

과거가 오늘의 힘이 된다는 이 메시지는 역사에 대한 이시영의 태도를 보여준다. "두고 온 것들"이 빛나고,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시인은 기억해낸다. 그래서 맛을 잃은 시대에 뿌린 소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던 길을 환히 비춰 길을 잃지 않게 한다는 것이니 그에게 그리움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힘이 된다. 사방이 어둡다 해도 그걸 밀고 나갈 기력의 원천은 여전히 고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시영의 시대를 대하는 태도는 대단히 당차다. 이것이 그의 시를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전복의 의지를 형성하는 토대다.

아직은 잠들지 못한다
(……)
아직은 더 함께 이 벌판에서
캄캄하게 술 마시고 노래 불러야 한다
우리가 함께 누운 벌판, 그대로 벼랑이 될지라도
(……)
찬 흙에 불 비비며 노래 불러야 한다

11 앞의 책, 14~15쪽.

01□□□(□□)_□□□□□□17□ 14. 8. 12. □□ 5:14 Page 19

우리들의 숨결에 더운 불빛이 일 때까지

—「불빛을 찾아」 부분[12]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곧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달리 어디에 따로 있는 출발 지점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그 자신이 "함께 누운 벌판" 자체가 새로운 역사를 일구는 현장이다. 그 자리가 "벼랑"이 된다고 해도 퇴각하지 말아야 할 자리이며 "찬 흙"이 볼을 시리게 해도 도리어 그것에 "볼 비비며" 고통을 통과하는 단련의 현주소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은 체념과 좌절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의 숨결에 더운 불빛이 일 때까지"라는 결의는 오늘같이 역사에 무감각해진 현실에 충격적 여파를 가한다.

70년대라는 시대적 현실과 마주하고 물러서지 않는 이시영의 이러한 자세는 문학이 얼마나 단단하게 시대적 모순을 격파하는 의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의지는 그냥 탄생하지 않는다. 희망의 언어가 태동하는 과정은 절망의 깊이로 들어서는 일에서 시작한다. 비극의 끝까지 가보고 그것을 목격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깃발이 휘날리지 않는 한, 이러한 시적 의지는 태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시영의 시 「흉년」은 이 시대의 절박한 현실이 어떤 비극으로 나타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리밭 속에 일렁이는 피
누나는 깜둥이에게 깔려 있었다
쪼콜렛과 소총이
다붙은 입술을 열고
오디처럼 오래오래 마을에 터졌다

12 앞의 책, 26~27쪽.

01□□□(□□)_□□□□□□17□ 14. 8. 12. □□ 5:14 Page 20

가을 밭갈이 때
쟁기날에 머리가 으깨어진
깜둥이 한 쌍을
구호물자와 함께 늙바리 황소는
삼켰다 긴긴 해 황토밭엔 깜부기만 익고
땅을 벌리고 황소가 낳은
네발의 흑 송아지
누나는 건초 밑에서 목을 메었다

—「흉년」 전문[13]

여기서 '깜둥이'는 인종차별적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캄캄해진 순간의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을 의미한다. "누나가 깔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목격담이 된다. 결국 그 누나는 목을 맨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능욕당한 시대의 처참한 진상이 여기에 고백되어 지고 있다. 힘이 없는 민중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역사다. "쪼콜렛과 소총"이라는 회유와 협박의 현실 앞에서 무력한 민중들은 겁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비극은 이 시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몰래몰래 누룩이 익었다
숨죽인 싸릿골을
너 짊어진 애비의 지게는 뜨고
(……)
누가 노예의 딸을 버리기 시작 했는가
우두를 맞고
무섭게 무섭게 식민지가 앓는다

13 앞의 책, 131쪽.

01□□□(□□)_□□□□□□17□ 14. 8. 12. □□ 5:14 Page 21

죽어서 네가 마마를 벗어나도
용서할 수 없는 나라
돌이 눌린 관이 들리고
능욕당한 네 다리가 삼베를 씹는다.

—「누룩」 부분[14]

이 시는 식민지 시대의 비극에 대한 고발이다. 온 나라가 집단적인 능욕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는 딸의 죽음 앞에서 거꾸러진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누룩이 익어간다. 그것도 "몰래몰래" 익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그렇게 누룩처럼 번지고, 권력의 눈길을 피해 비밀스럽게 집결한다. 이시영의 시 자체가 결국 70년대의 '누룩'이 되는 격이다. 그것은 소리 없이 번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익어가며 어느 때가 오면, 마침내 세상을 덮는 것을 내다보려 한다. 하늘을 향해 반듯이 누워있던 돌이 누룩처럼 세상에 번지며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누룩이라 함은 현실을 뒤엎는 정신과 갈망, 의지를 담고 있는 작은 시작이다. 하지만 그것이 때가 되면 빵을 부풀게 하듯 새로운 격변의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시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시영의 시는 70년대의 현실을 보면서 한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좌절감을 분노처럼 터뜨리는 것도 아니다. 민중의 비극적 현실에 대해 이시영은 눈을 떼지 않았고, 시인이 당대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중의 민족적 현실에 대한 발언도 그의 시에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귀를 두 개 가진 사람을 보았습니까
(……)

14 앞의 책, 134쪽.

01□□□(□□)_□□□□□□17□ 14. 8. 12. □□ 5:14 Page 22

귀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자기 귀를 삼키고 자결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시퍼런 칼로 싹둑 잘라
남의 귀를 삼킨 사람을 보았습니까
더 삼키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다른 나라 귀를 밀매하는 은밀상점을 보았습니까
양철 귀를 찍어내는 제철회사를 보았습니까

—「귀 이야기」 부분[15]

의식세계가 분열된 현실을 이토록 분명하게 표현하는 경우를 보았나 싶을 정도다. 외세의 압박과 세뇌에 자기분열적 중병을 앓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한 고발이다. 자신의 귀가 아닌 것을 달고 다니면서 마치 자기 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식민주의의 틀을 깨려는 시인의 노력은 치열한 언어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세뇌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인의 눈은 이걸 가려내고자 한다. 그것도 '양철 귀'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억압과 고통을 뚫고 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기존질서에 대한 혁명을 내세우는 그의 전복 행위이다.

시대는 이렇게 가혹한 흉년을 강요하고 있지만, 바로 그 벼랑이 된 벌판에 누워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시인으로 인하여 흉년의 현실을 민중은 이겨낼 수 있다. 이시영은 그런 시적 의지를 70년대의 문학사에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것은 관념을 벗어난 현실에서 시의 원천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16]

때문에 현실의 압제를 뚫고 이겨나가려는 이시영의 의지는 강력하다.

15 앞의 책, 80~81쪽.

01□□□(□□)_□□□□□□17□ 14. 8. 12. □□ 5:14 Page 23

이시영의 시 「1942년, 침략자의 경기장에서 뛰던 수말들」이라는 작품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1942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3회 명치신궁 체육대회 축구결승전의 광경을 그리고 있다. 1대 1의 연장전에서 조선 팀은 극적인 승리를 거둔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마늘내 나는
목을 꺾어 길길이 뛰고
우리는 사각모자를 벗어
황족들의 숨죽인 스탠드 위로 던졌다
꼴 인 꼴 인 꼴 인 꼴 인
(……)
사이렌이 긴 혀를 빼어물고
1942년 제국의 종말의 소리
우리는 스탠드를 박차고 나가
조선에서 온 날렵한 더벅머리들을 얼싸안고
서로의 맥박을 확인하며
아리랑을 불렀다
진정하라 조선학생들 진정하라는
마이크 소리도 아랑곳없이
면도칼 같은 순사들의 호각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망토를 벗어제낀 어깨 어깨에 선수들을 태우고
신주꾸의 비어홀로 쫓기면서 쫓기면서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을 목메어 불렀다

—「1942년, 침략자의 경기장에서 뛰던 수말들」 부분[17]

16 시집 『만월』이 나왔을 때, 『창작과 비평』 1977년 여름호(제12권/통권 44호)에는 최민의 「소시민 의식의 극복」이라는 평론이 실렸다. 여기서 최민은 이시영의 시가 다소 관념적이고 민중과의 연대도 관념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이시영의 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데서 온 평가라고 보여진다.

01□□□(□□)_□□□□□□17□ 14. 8. 12. □□ 5:14 Page 24

온 천지가 일본 식민지로 뒤덮여 있어도 뚫어낸 길이 있듯이, 그렇게 이 현실을 관통해나갈 길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아리랑을 목메어 불렀던 1942년, 그 날은 제국의 종말을 예고한 날이라는 시인의 외침은 자기가 누운 벌판이 곧 새로운 출발의 터라는 의식의 관철이다. 그런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흉년의 세월도 추수를 위한 역사의 양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이 도리어 희망의 터가 된다는 이 역설의 희망은 이시영 시의 내면에 담긴 미학의 기본가치다.

4. 어둠의 끝으로 가서 희망을 발견하는 시인, 김명인

이시영과 동시대를 살아온 김명인은 무엇보다도 외세의 힘에 짓눌린 민중의 현실에 자신의 시적 초점을 맞춘다. 그의 시집 제목이 『동두천』인 까닭도 동두천이 미군기지의 현장이면서 이 나라 민중의 고난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근대라는 대단히 침략적인 역사의 현장 자체이며, 고아, 월남전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시적 고발의 세계를 확대하고 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의 모습은 한 마디로 거꾸로 흐르는 물이었다.

> 공장과 폐수와 진창 바닥 움켜쥔 채 너는, 변두리 길목 흙먼지 뿌연 그 속에 앉아 있었다. 시계를 고치면서, 기다리지 않겠다 않겠다고 흘러가 버릴 시간을 되살려 놓으면서, 비추고 또 비추어도 외눈박이 확대경 속은 고장 난 세상.
>
> —「역류逆流」 부분[18]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창바닥이다. 그 세상은 이미 고장 나 있었고, 폐

17 이시영, 앞의 책, 147~148쪽.
18 김명인, 『동두천』, 문학과 지성사, 1979, 15쪽.

01□□□(□□)_□□□□□□17□ 14. 8. 12. □□ 5:14 Page 25

수가 흐르는 곳이었다. 그런데 공장 폐수는 당대의 경제건설의 다른 얼굴이었으니, 그 성과는 누군가 가져가고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몸을 바친 이들은 폐수의 진창에 몸을 박고 살고 있었던 것이다. 김명인은 근대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권력과 자본은 모든 것이 다 잘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역류의 현실을 지목하는 이들을 불온시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거꾸로 서 있고, 모순은 은폐된다.

김명인은 한 시대가 황폐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베트남전에서 이미 목격한다.

먼지를 일으키며 차가 떠났다, 로이
너는 달려오다 엎어지고
두고두고 포성에 뒤짚히던 산천도 끝없이
따라오며 먼지 속에 파묻혔다 오오래
떨칠 수 없는 나라의 여자, 로이
너는 거기까지 따라와 벌거벗던 내 누이

로이, 월남군 포병 대위의 제3부인
남편은 출정중이고 전쟁은
죽은 전 남편이 선생이었던 국민학교에까지 밀어닥쳐
그 마당에 천막을 치고 레이션 박스
속에서도 가랑이 벌여 놓으면
주신 몸은 팔고 팔아도 하나님 차지는 남는다고 웃던

로이, 너는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였지만
깡마른 네 몸뚱아리 어디에 꿈꾸는 살을 숨겨

—「베트남 I」 부분[19]

01□□□(□□)_□□□□□□17□ 14. 8. 12. □□ 5:14 Page 26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의 여인이 당하는 치욕은 도덕적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을 담보로 당해야 하는 유린이다. 그 유린의 현장에 파병부대의 일원으로 간 시인은 미국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레이션 박스"에 "가랑이를 벌"리며 살아가야 하는 야윈 식민지 백성의 비애를 토로한다. 이들의 몸은 깡마르고 볼품없다. 그런 존재에게서 미래에 대한 꿈이 있을까 싶기조차 하다. 그러나 시인은 그 숨겨진 꿈을 본다. 하지만 그 꿈은 부서지고 짓밟힌다. 그리고 능욕 당한다. 나라 전체를 결단내고 있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벌인 미국과 그 전쟁터로 내몰려간 한국 남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하는 베트남의 고통은 타자의 고통이 아니었다.

> 한 나라가 무엇으로 황폐해지는지 나는 모르지만
> 한 어둠에서 다른 어둠으로 끌려가며
> 차례차례 능욕당한 네 땅의 신음소리를 다시 듣는다.
>
> —「베트남 Ⅱ」 부분[20]

베트남은 단지 베트남이 아니고, 외세에 의해 능욕당하는 곳이면 그 어디든 베트남이 된다. 그것은 김명인이 토로하고 있듯이 "황폐"이며, "차례차례 능욕당하는 네 땅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그가 이 시를 쓴 1970년대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금지되었던 시기임을 안다면, 이 시가 얼마나 '과격'할 수 있는 작품인지 새삼 돌아보게 된다. 바로 그 황폐를 강요한 전쟁에 일원이 된 나라의 병사로 존재했던 김명인은 그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듣는다. 그 고통의 절규는 베트남에서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근대는 제국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간 역사이기 때문이다.

---

19 앞의 책, 21쪽.
20 앞의 책, 23쪽.

01□□□(□□)_□□□□□□17□ 14. 8. 12. □□ 5:14 Page 27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는 베트남과 닮은 동두천으로 옮겨온다. 동두천은 군사기지요, 혼혈아들의 현실이며 미국과 한국이 만나는 접점이다. 그곳은 한국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베트남이었다. 거기에는 근대의 최첨단 미국의 지배가 관철되는 식민지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고통의 아우성이 만연해 있었다.

교실은 어느 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태어나서 죄가 된 고아들과
우리들이 악쓰며 매질했던 보산리 포주집 아들들이
의자를 던지며 패싸움을 벌이고
화가 나 나는 반장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니
이빨이 부러졌고.

—「동두천 I」 부분[21]

그렇게 교실처럼 세상은 난장판이었고, 서로가 피해자이자 희생자인 이들이 싸웠다. 정작 이런 상황을 만든 자들은 이 교실이라는 세상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태어나서 죄가 된 고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게 난장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돌파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식민지의 사생아 혼혈들의 현장에서 김명인은 고뇌한다.[22] 그리고 그 답을 당사자들에게 듣는다.

내가 국어를 가르쳤던 그 아이 혼혈아인
엄마를 닮아 얼굴만 희었던

21 앞의 책, 35쪽.
22 동두천 시절의 기억과 체험은 김명인에게 치욕의 삶으로 각인된다고 평론가 김경복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치욕의 삶이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겪은 시대의 자화상에 대한 정직한 자기고백이자 그걸 넘어서려는 의지가 담긴 시적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복, 「김명인, 치욕과 회한의 시계추」, 『문예비평』 통권 제5호, 1992, 118~119쪽.

01□□□(□□)_□□□□□□17□ 14. 8. 12. □□ 5:14 Page 28

그 아이는 지금 대전 어디서
다방 레지를 하고 있는지 몰라 연애를 하고
퇴학을 맞아 고아원을 뛰쳐 나가더니
지금도 기억할까 그 때 교내 웅변 대회에서
우리 모두를 함께 울게 하던 그 한 마디 말
하늘 아래 나를 버린 엄마보다는
나는 돈 많은 나라 아메리카로 가야 된대요
(……)
그래 너는 아메리카로 갔어야 했다
국어로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 네 모습이 주눅들 리 없는
합중국이고
우리들은 제 상처에도 아플 줄 모르는 단일 민족
이 피가름 억센 단군의 한 핏줄 바보같이
가시같이 어째서 너는 남아 우리들의 상처를
함부로 쑤시느냐 몸을 팔면서
침을 뱉느냐 더러운 그리움으로
배고픔 많다던 동두천 그런 둘레나 아직도 맴도느냐
혼혈아야 내가 국어를 가르쳤던 아이야

—「동두천 Ⅳ」 부분[23]

혼혈아는 우리의 역사에서 태어난 새로운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서로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한 국제결혼의 결과가 아니다. 식민지의 역사가 낳은 비극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부인하고 짓밟고 천시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 가슴에 못을 박아댔다. 결국 어디로 떠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이는 답한다. "나는 돈 많은 나라 아메리카

23 김명인, 앞의 책, 39~40쪽.

01□□□(□□)_□□□□□□17□ 14. 8. 12. □□ 5:14 Page 29

로 가야 된대요." 김명인은 현실이 드러낸 모순과 역설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이 아이가 떠나고자 하는 그 아메리카는 베트남과 이 땅을 황폐하게 한 당사자이며,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의 씨앗을 뿌린 힘이다. 그런데 거대한 외세의 정체는 이렇게 가해자가 아닌, 시혜자로 바뀐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답하는 아이의 답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 너는 아메리카로 갔어야 했다"고 수긍한다.

이런 역사 앞에서 시인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하면서 자기를 비판적으로 돌아본다. 그건 무기력하면서도 윤리공백의 자아다.

누가 누구를 벌 줄 수 있었을까
세상에는 우리들이 더 미워해야 할 잘못과
스스로 뉘우침 없는 내 자신과
커다란 잘못에는 숫제 눈을 감으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될 작은 잘못에만
무섭도록 단호해지는 우리들

—「동두천 Ⅴ」 부분[24]

역사의식은 해체되고, 존재는 용렬해져가면서 정작 따져야 할 바는 따지지 못하고 마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식민지의 관성은 여전히 남아 왜소해지는 의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바뀌어갈 줄 모른다. 돌파구가 부재한 현실이다. 그런 벽 앞에 마주한 한반도의 역사가 도달한 바닥을 그는 이렇게 들여다본다.

나는 잠이 든다, 어머니.
한반도의 밤은 빠져들수록 바닥 모르게 깊고

24 앞의 책, 41쪽.

01□□□(□□)_□□□□□□17□ 14. 8. 12. □□ 5:14 Page 30

깊어서 밤새도록 따라 내려가면
어른거리는 꿈에서 칼자국 뿌려 놓고
땅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갈쿠리 소리가
다시 귓가에 떨어진다.

—「무전여행」 부분[25]

김명인도 이시영과 마찬가지로 비극의 밑바닥까지 들어선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역사를 어디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밤은 빠져들수록 바닥 모르게 깊고 깊"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에서 본다. 거두어 갈 것은 거두어가는 하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 밤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인의 예언자적 육성이다.

김명인은 이렇게 한 시대의 비극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서 아픔의 끝까지 간다. 모든 희망은 절망의 계곡에 들어서는 것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그래서 절망의 보고자인 동시에 희망의 메신저라는 역설의 이중적 역할을 부여받는다. 진정한 부활은 죽음에서 비롯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인은 비극에서 탄생하는 희망의 신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바닥으로 내려가야 위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한다는 시인의 의식은 그래서 다시 희망의 길을 발견하는 노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의 시 「들판에서」의 일부다.

팽이를 들고 아버지의 들판까지 갔다
스무 몇 해 만에 피고 있는 필생의 울음 꽃 하나가
길 옆에서 보였고

25 앞의 책, 60~61쪽.

01□□□(□□)_□□□□□□17□ 14. 8. 12. □□ 5:14 Page 31

두엄 밭에서는 그의 지게가
이 시대의 적막을 지고 서 있었다.

이 길은 나에게도 모두 낯이 익었다.
내가 헤쳐내는 세상의 키 낮은 들풀이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고
아직 다 넘어가지 못한 바람의 꼬리가
보릿고랑 사이에서 흔들렸다

날마다 그날 그날의 식사와 고향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들판에서는
저 곡식이 저렇게 펴 대는 것을
콩새 울음은 콩밭에서 죽고
허나 두엄도 없이 사랑만으로
눈 뜨면 얼마나 큰 땅이 눈을 뜨는가
(……)
새 넌출은 죽은 넌출을 덮고 넌출들은 죽어서도
새로운 숲을 이루고 있는 것도 보았다

—「들판에서」 부분[26]

들판 하나가 지켜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시인은 똑똑히 본다. 죽은 것들이 그저 죽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숲을 이루는 터가 되는 것도 목격한다. 제대로 눈만 뜨면, 우리 앞에 큰 땅이 펼쳐질 것이라는 신념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런 의지가 바로 시인의 몫이다. 비극의 복판으로 들어가서 어둠의 끝을 보고, 그래서 다시 희망의 들판으로 우

26 앞의 책, 107~108쪽.

01□□□(□□)_□□□□□□17□ 14. 8. 12. □□ 5:14 Page 32

리를 이끌어내는 시인을 우리는 그에게서 본다. 비극은 그래서 그 자체로 폐허가 아니다. 비극 속에 담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미래를 좌우한다.

김명인은 1990년 중반에 들어서 민족문학이 상투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민족문학에 대한 청산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좀 달랐다. 그것은 현재의 현실과 대결하는 의지를 자칫 잃어버리고 관성에 따라 민족문학이 연명하는 것을 비판했던 것이다.[27]

역시 희망은 현실과 역동적이 대치를 하면서 그 긴장 속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현실의 힘이다. 김명인은 그걸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다. 현실의 모순과 대치하기를 포기하는 시인과 시는 생명력이 고갈되어 갈 것이며, 관성에 따른 문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의 경고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고통이 깊어가면 시는 도리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김명인의 시는 보여주고 있다. 김명인의 시는 그래서 억압과 절망의 현실에 대한 전복의 언어다.

5. 결론

이시영과 김명인의 시를 읽다보면 우선 암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당대의 비극을 직시한 결과다. 시가 현실의 부당함을 이기려면 먼저 현실의 진상과 마주하는 과정을 빼놓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극에서 일어서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대가 겪고 있는 고통의 정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희망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이시영과 김명인은 그래서 현실을 투명하게 대한

27 고봉준, 「비극적 세계인식과 유토피아의 상실」, 『문학과경계』 통권 16호, 2005, 53~54쪽.

01□□□(□□)_□□□□□□17□ 14. 8. 12. □□ 5:14 Page 33

정직한 시인들이다. 그런 까닭에 쉽게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이 절망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어둠의 안내자는 결코 아니다.

이시영과 김명인은 그런 점에서 다르지 않다. 굳이 차이를 보자면, 김명인이 대체로 도회적인 시학(詩學)을 추구했다면, 이시영은 우리의 전통적 삶과의 끈을 끈질기게 놓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시영에게 있어서 역사의식은 본능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김명인에게는 현실과의 의식적인 대결이 낳은 산물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렇다고 이시영에게 현실과의 의식적 대결이 부재한다거나, 김명인에게 역사에 대한 본능적 가치판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굳이 차이라고 한다면, 이시영은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을 돌이켜 회상하며 이것을 새로운 힘으로 복원하려 하고 있으며, 김명인은 그 살아온 모습을 해체하고 있는 근대의 정체를 직시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 「남녘」에서 "남쪽 끝은 서러워라"라고 하는 이시영과, 「역류」에서 "공장과 폐수와 진창 바닥 움켜쥔 채 너는"이라고 하는 김명인의 모습은 서로 서 있는 현장의 구체적 내용이 가져오는 다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시영은 우리의 토속적 삶을 시의 고향으로 삼고 있다면, 김명인은 근대적 변화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만들어진 현장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래서 김명인은 그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시영은 그의 몸이 감지한 것에 대해 말한다. 물론 그것이 각자의 시적 차원의 우열이나 시의 품질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명인은 현실과 다소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모습이라면, 이시영은 온 몸을 들이밀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자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작은 차이이다. 이들은 결국 인간의 생명이 압살되고 그 존엄성이 유폐되어버린, 능욕당한 시대를 고발하고 있으며, 그걸 꿰뚫고 나갈 길을 찾아 나선 시인들이다. 결국 두 시인의 종착점은 합류한다. 그것은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의 언어와 상상력을 길어 올리는 시 정신의 역설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다.

01□□□(□□)_□□□□□□17□ 14. 8. 12. □□ 5:14 Page 34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도, 여전히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려 내는 시인은 우리에게 미래의 좌표를 일깨우는 깃발이 된다. 능욕당한 시대를 고발한 시인들의 시는 진실의 언어를 통해 희망에 다가서는 시의 세계를 여는 존재들이다. 이시영과 김명인은 현실을 바꾸어 나갈 희망의 진로에 대해, 절망을 관통하는 "역설의 미학"을 제시하고 있다.

01□□□(□□)_□□□□□□17□ 14. 8. 12. □□ 5:14 Page 35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명인, 『동두천』, 문학과 지성사, 1979.

이시영, 『만월』, 창작과 비평, 1976.

2. 단행본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김윤식 외, 『한국현대시사 연구』, 시학, 2007.

신경림, 『삶의 진실과 시적 진실』, 전예원, 1982.

3. 일반자료

고봉준, 「비극적 세계인식과 유토피아의 상실」, 『문학과경계』 2005년 봄호.

김경복, 「김명인, 치욕과 회한의 시계추」, 『문예비평』 1992년 봄호.

신경림, 『독서생활』, 삼성출판사, 1977년 3월호.

한홍구, 『대한민국 史』 1권, 한겨레 출판사, 2006.

01□□□(□□)_□□□□□□17□ 14. 8. 12. □□ 5:14 Page 36

Abstract

Subversive Words of Hope in the midst of Oppressi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Poets, Siyoung Lee and Myungin Kim

Koo, Hye Sook

To read the poems which the two poets Siyoung Lee and Myungin Kim wrote in the 1970s makes the readers to critically reflect the historical reality of Korea under the political oppression of military government. It also helps the readers to articulate the role of poems in the midst of sufferings. Siyoung Lee and Myung Kim tried to overcome the hardships through subversive representation of oppressive reality.

The 1970s is an object of controversial debate, since some believes the time as the moment of development, and the others strongly argues about the deprivation of the common people by the political power in the form of modernization. Siyoung Lee and Myungin Kim tried to reveal the dark side of this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take sides with the oppressed.

The thesis supports the idea of subversive role of poems and its literary responsibility to talking to the power with prophetic courage in order to liberate the people from the bondage of oppression. The poetic world of Siyoung Lee and Myungin Kim resembles each other and demonstrates the power of poem that depicts the tragic reality,

01□□□(□□)_□□□□□□17□ 14. 8. 12. □□ 5:14 Page 37

while discovering the layers of hope.

A comparative study of these two poets' works, who represent the model of the 1970s' progressive movement of literature clarifies the essential function of literature in terms of its relation with the historical reality. In the poems of Siyoung Lee, the readers could find the source of revitalizing the power of resistance of the people to the hegemonic rule of the repressive political authority. The readers could see how Myungin Kim approached the question of modernization and thought of its socio-political implications.

These two poets never failed to express their agony concerning the utter depression, but also succeeded in raising our consciousness of hope which is subversive to the power that be. In 1970s, this kind of progressive movement of poets and the novelists opened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Siyung Lee and Myungin Kim will be remembered as the harbingers of the poetic movement in realizing the justice and the freedom of thoughts in the field of literary works. And this holds still true when our society experiences another phase of political authoritarianism and economic exploitation. We desperately need the poetic justice which could empower the people who suffer.

주제어: 고통(sufferings), 절망(depression), 1970년대(1970s), 폭력(violence), 근대(modernity), 존엄성(dignity), 역설(paradox), 희망(hope), 전복적(subversive)

논문 접수일 2014. 05. 09. | 논문 심사일 2014. 05. 23. | 게재 확정일 2014. 06. 16.